

# 1인 가구 시대 대비 ‘촘촘한 통합돌봄’ 서둘러야

## ‘가정의 달’ 도움 손길 필요하다

### ⑥ 돌봄 사각지대

행정복지센터 든든한 동반자 역할  
홀몸노인 등 가정 직접 방문 서비스  
“공동체 의식 회복 노력 선행돼야”

“장애를 앓고 있거나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웃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돌봄 사각지대가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30일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윤계영 주무관은 최근 두 달여간 돌봄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한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후된 주택에서 홀로 쓸쓸히 생활하는 독거노인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이웃에 이르기까지 가슴이 뭉클했던 사연을 소개하며 쓸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윤 주무관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70세 남성은 1인 가구로, 하체 마비로 인해 휠체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또 부양 의무자도 없고 돌봐주는 가족도 없어 홀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에 이미 지친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기존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받고 계시지만, 저녁시간에는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해 끼니 해결조차 쉽지 않았다”며 “또, 희귀성·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역시 홀로 생활하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제각각 굵어져 있어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윤 주무관은 이어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거나 관리하는 게 힘이 들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계기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이전과 달리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 생각이나 가슴이 먹먹해지곤 한다”고 소회했다.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고은영 주무관도 최근 4명의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돌봄콜 신청을 받고 돌봄서비스를 연계했다.

신정인 A씨의 둘째 자녀는 혈액암으로 한 달에 두번 또는 일주일씩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모두를 돌보는 게 녹록치 못한 상황이었다. 또, 홀로 아이의 간병도 해야 하는 터라 집에 남은 아이들이 항상 걱정되었고,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는 식사지원이 불가능한 탓에 늘 걱정이 앞섰다.

고 주무관은 “입원 치료로 집을 비우는 동안 A씨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가사와 식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남겨지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추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한 달 만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97개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두 달간(4월 1일~5월 14일) 2,926건이 접수됐으며, 4,345건의 서비스가 의뢰됐다. 하루 평균 100여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하지만 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녀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1인 세대에 맞춰 주택 등 소비시장도 변화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바탕에는 공동체 의식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배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광주형 통합돌봄은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복지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앞으로는 1인 가구와 노인이 증가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돌봄 커뮤니티케어 사업(지역사회보호)과 광주형 통합돌봄 정책을 연계하게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글>/최환준 기자

## “위니아전자, 생산직 정리하고 중단하라”

### 금속노조, 본사 앞서 촉구

위니아전자의 대규모 인원 감축 구조조정을 두고 노동자들이 ‘사측의 경영실패 책임 전가’라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는 30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위니아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니아전자가 130명 감축이라는 정리해고안을 밝혔다”며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위니아전자와 노조가 합의한 정리해고안은 내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신청받고 인원이 충족하지 않으면 사측이 나서서 해고하겠다는 내용이다”며 “근속, 연령,

장계, 평가 등을 기준으로 사실상 대상자 명단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 공장의 멕시코 이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영실패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며 “회사는 폭력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생산직 사원 절반에 가까운 130명을 구조조정하면 남은 인원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대규모 인원감축은 전자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청업체까지 이어지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 광주·전남 암환자 발생률 감소세

### 남성 폐암·여성 갑상선암 최대

광주·전남지역 신규 암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는 30일 광주·전남지역 암 등록 통계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0년 암발생률 및 생존율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광주·전남에서 신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만 6,905명으로 지난 2019년(1만 7,805명)과 비교해 900명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6,403명(남자 3,299명·여자 3,104명), 전남은 1만 502명(남자 5,892명·여자

4,610명)으로 집계됐다.

암종별로 광주는 상위 10개 발생 빈도가 높은 암(호흡암종) 중 위암·대장암·전립선암 등 순으로 감소한 반면 갑상선암과 폐암, 간암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폐암과 비호지킨림프종을 제외한 모든 암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모두 위암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여성에서는 유방암, 남성은 전립선암과 췌장암이 각각 증가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전남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남성의 경우 광주·전남 모두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여성 또한 갑상선암이 가장 호발하는 암종으로 나타났다.

/최환준 기자



장수어르신 생신잔치  
광주 남구 월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어르신 28명을 모시고 장수를 축하하며, 모시옷 및 다과세트 등을 선물하는 ‘효나눔 장수어르신 생신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제공

## 경실련 “광주FC 경영본부장 채용과정 밝혀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0일 “광주FC는 현 경영본부장에 대한 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성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경영본부장 채용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 한 장 없이 광주FC 이사회 결의에 의해 채용했

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매년 100억여 원을 지원해주는 광주FC는 공적인 개념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적 성격이 짙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FC 구단주로서 광주 FC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 01 **화장실 칸막이**
-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 03 **벽천장용 흡음재**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